트레이드 렌즈
TRADE LENS

투자에 초점을 맞추다.

LENS INSIGHT / No.10

한국 ESS 중앙계약시장의 계약·성능·현금흐름을 읽는 리서치

ESS 중앙계약시장 이익은 어디에 남는가

배터리 공급부터 장기 운영까지

수요의 규모	1,180MW·7,080MWh의 신규 공고
이익의 조건	계약 유형·성능 유지·위험 배분·자본비용

수주 물량보다 중요한 것은
계약을 끝까지 이행하고 남기는 현금이다.

육지 15년·제주 15년·제주 25년의 정산 구조와 기업별 수익 원천을 분리한다.

분석 기준일 2026.10.25

TRADELENS.KR

산업구조·계약 경제성·수익 귀속 분석

01 / THE CORE VIEW

이익은 성능을 유지한 뒤에 남는다

핵심 질문: 배터리와 설비를 더 많이 공급하면, 그 대가는 누구의 현금으로 남는가?

TRADELENS의 판단

ESS 중앙계약시장의 경제적 분기점은 공급 물량보다 장기 성능을 충족하는 총비용이다. 이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고 공급·운영·금융계약에 나눠 담을 수 있는 사업자가 잔여현금을 방어한다.

판단	근거와 경제적 의미
01 계약부터 구분	육지 15년, 제주 15년, 제주 25년은 계약가격 적용률과 시장 참여 방식이 다르다. 같은 MW를 같은 수익률로 읽을 수 없다. [2] [3]
02 성능은 현금 변수	공급가능용량·이행률은 정산에 반영된다. 일부 비가격 요건 미달은 계약가격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낙찰 때의 높은 성능 약속은 이후 비용 의무도 만든다. [2]
03 반복수익도 비용을 동반	EPC·O&M 대가와 SPC의 전체 정산수입은 다르다. 장기 서비스 매출에서 복구·보증·보험 부담을 차감해야 경제적 몫이 드러난다. [9] [10]

누가 유리한가. 최저 부품가격만 제시하는 공급자보다 시스템의 실제 성능과 비용을 계약기간에 걸쳐 설명할 수 있는 조합의 협상력이 중요해진다. 다만 경쟁입찰이 비용 절감분을 정산단가 인하로 이전하면, 기술 우위가 모두 공급자 이익으로 남지는 않는다.

판단을 뒤집을 조건

보증과 통합 기술이 표준화되어 별도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낙찰단가 하락폭이 설비·운영·금융비용 절감폭을 넘으면 수요 증가와 이익 증가의 연결은 약해진다.

02 / TENDER & TIMING

1,180MW는 매출이 아니라 공고 물량

전력(MW), 저장에너지(MWh), 과거 선정물량과 이번 공고를 각각 같은 기준으로 읽는다.

2026년 신규 공고	출력	저장량	요구 지속시간
육지	1,100MW	6,600MWh	6시간
제주	80MW	480MWh	6시간
합계	1,180MW	7,080MWh	6시간

송전단 기준 공고물량. 7,080MWh = 7.08GWh이며 최종 낙찰·실제 설치·배터리 셀 구매량과는 구분한다. [2] [3]

1,196MW는 별도의 과거 누적값

정부가 제시한 1,196MW는 2023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세 차례의 누적 선정물량이다. 금번 1,180MW의 지역별 합계나 이미 준공한 규모가 아니다. [1]

확인할 일정	의미
2026.09.22	육지·제주 입찰공고
2026.11.04 18:00	육지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
2026.11.11 15:00	사업계획서·증빙을 포함한 입찰공고 마감
2029.02	공고상 준공기한

일정은 공고 기준. 선정·허가·계통연계와 공사·검수는 서로 다른 단계다. [2] [3]

TRADELENS 해석

공고는 수요의 출발점이다. 배터리·PCS의 발주, 공급자의 매출 인식, 대금 회수와 운영 정산은 시점이 다르므로 7.08GWh를 즉시 기업 매출이나 이익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03 / THREE CONTRACT ECONOMIES

같은 ESS라도 세 가지 계약 경제성

15년·25년은 상업운전 이후 거래기간이다. 사업 준비기간과 지연에 따른 조정은 별도로 본다.

항목	육지 15년	제주 15년	제주 25년
공고 물량	1,100MW	제주 합계 80MW	15년형과 통합 평가
계약가격	입찰가격 100%	입찰가격 60%	입찰가격 100%
시장 차익거래	허용하지 않음	허용·지급계수 적용	허용하지 않음
충전비·방전수익	별도 대금결제 없음	전력시장 정산	별도 대금결제 없음
설비 요건의 연간 사이클	383회 이상	395회 이상	730회 이상
거래기간 누적 사이클	5,745회 이상	5,925회 이상	18,250회 이상

사이클은 공고의 설비 성능·보증요건이며 실제 연간 가동 실적이 아니다. 물량·정산·기술요건의 기준: [2] [3]

제주 15년형은 계약 정산과 시장 정산을 결합한다. 제주 25년형은 더 긴 기간과 높은 충·방전 내구 요건을 맞추는 구조다. 두 유형을 계약기간만 바꾼 같은 금융상품처럼 비교하면 성능비용과 수익 변동성을 놓친다.

60%·100%는 투자비 회수 보장률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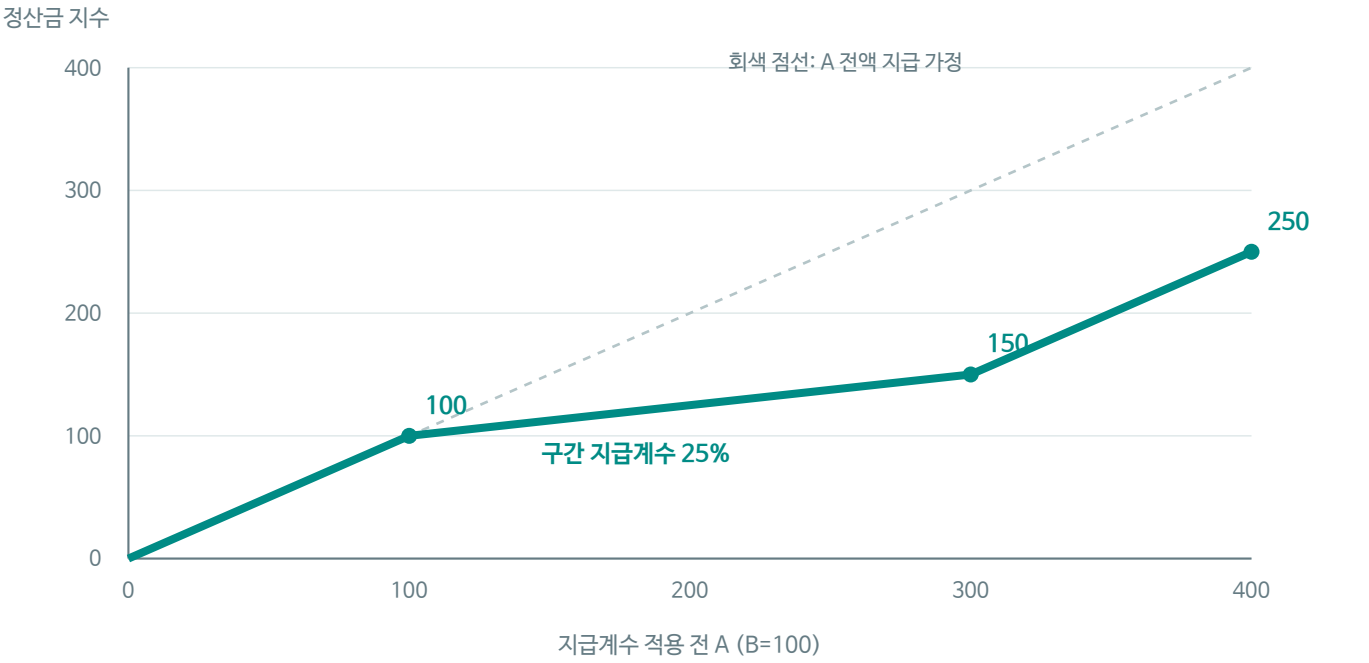
두 비율은 입찰가격에 적용하는 계약가격 비율이다. 공급가능용량, 이행, 고장·정비 및 계약가격 조정에 따라 실제 정산금이 달라진다. 고정계약도 무조건적인 현금 보장은 아니다. [2] [3]

04 / JEJU: REVENUE SHARING

제주 15년형의 60%를 읽는 법

별도의 계약가격 정산금과 월별 차익거래 정산금을 나눈 뒤, 각각 비용과 위험을 연결한다.

A는 지급계수 적용 전 월별 차익거래 누적수익, B는 입찰가격 40%와 낙찰용량·해당 월 시간수로 산정하는 기준값이다. B는 최소 보장수익이 아니다. 아래는 B=100, A≥0의 지수화이며 계약가격 정산금은 제외한다. [3] [4]



월 수익 A	0	100	200	300	400
차익거래 정산금 F(A)	0	100	125	150	250

계수: B 이하 100%, B 초과~3B 이하의 추가분 25%, 3B 초과 추가분 100%. 시장수익은 에너지·보조서비스 정산에 기초하며 최종 영업이익이 아니다. 월 수익이 없거나 음수이면 추가 보상이 없다. [3] [4]

TRADELENS 해석

B와 3B 사이에서는 추가 시장수익 100 중 25만 차익거래 정산금에 반영된다. 최적 운전의 가치는 시장가격 차이뿐 아니라 이 배분 규칙, 추가 사이클의 열화비용과 운영비를 함께 고려해야 판단할 수 있다.

05 / PERFORMANCE & SETTLEMENT

6시간은 설비 조건, 지급시간은 별개

공급가능용량의 시간당 정산과 실제 방전전력량의 판매가격을 혼동하면 수익 계산부터 달라진다.

육지 정산의 구조

시간대별 계약가격 × 공급가능용량 × 이행률을 합산한다.
일간 정산은 24시간을 합산하고, 공급가능용량은 최대전력저장량 ÷ 6으로 환산한다. [2]

입찰가격 단위인 **원/kW-h**는 공급가능용량에 대한 시간당 단위 고정비다. 실제 방전량에 적용하는 전력 판매단가와 의미가 다르다. 단순 연간 계산이라면 시간대별 요인을 합산해야 하며, 설비가 6시간형이라는 이유로 하루 6시간만 지급된다고 계산할 수 없다.

현금에 작용하는 요소	발생 경로	분석할 질문
계약가격	비가격 약속 일부 미달 시 조정 가능	약속한 수명·효율이 계약기간에 유지되는가?
공급가능용량	시간대별 유효 용량 반영	계약 요건에 맞는 에너지를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가?
이행률	급전지시와 이행량 차이 반영	제어·정비·복구 체계가 지시를 이행하는가?

가격평가 50점·비가격평가 50점. 비가격 내부 100점 표는 최종 50점으로 환산한다. 계약가격 조정은 공고상 요건과 산식에 따른다. [2]

좋은 점수와 좋은 현금흐름은 함께 설계해야 한다

낙찰을 위해 높은 성능을 약속하면 그 의무의 이행비용도 부담한다. 동일 원인을 자동으로 중복 감액하지 말고 가격·용량·이행의 각각의 적용 요건과 시간대를 확인해야 한다.

06 / WHO EARNS WHAT

수익과 위험은 같은 곳에 모이지 않는다

아래는 경제적 역할의 구분이다. 실제 책임은 공급·공사·운영·금융계약에 따라 달라진다.

주체	받는 대가	이익을 좌우하는 비용·책임
배터리·PCS 공급자	제품·시스템 판매대금	판가·제조원가·제품 믹스·가동률, 하자·성능보증과 사후 대응
SI·EPC 통합·시공사	설계·조달·시공 대가	인터페이스·계통연계·인수시험, 공사 지연과 성능 미달의 부담
O&M 운영·정비사	장기 운영·유지보수 수수료	인력·예비품·복구, 서비스 수준과 배상한도·물가 부담
SPC·사업주	계약·시장 정산금	운영·보험·수리, 금융 원리금·세금·준비금 이후의 잔여현금

SI=시스템 통합, EPC=설계·조달·시공, O&M=운영·유지보수, SPC=특수목적법인. 역할 사례: [8] [9] [10]

합산하면 생기는 착시. SPC가 지급한 배터리·공사·운영 대가는 각 공급자의 매출이 된다. 같은 프로젝트의 정산수입과 이들 매출을 더하면 경제적 가치를 중복 계산할 수 있다. 공급자의 보증 대가는 사업주에게는 위험을 줄이는 비용이다.

가격결정력의 위치. 표준화된 부품은 단가 경쟁이 강해질 수 있다. 반면 계통연계와 통합 성능, 복구 능력을 묶어 정산 차감과 생애비용을 줄이는 검증된 조합은 입찰 경쟁력에 기여한다. 그 절감분이 누구에게 남는지는 계약가격과 경쟁 강도에 달려 있다.

TRADELENS 해석

장기 운영사가 항상 가장 많이 번다는 결론은 성립하지 않는다. 수수료를 받는 주체, 보증비용을 부담하는 주체, 최종 잔여위험을 보유한 주체를 한 계약 지도에서 읽어야 한다.

07 / BATTERY SUPPLIERS

배터리 수주는 수익성의 출발점이다

공급 실적, 제품 범위와 미래 계획을 나누어 읽고 국내 개별 계약의 이익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기업·근거의 성격	확인되는 범위	수익 귀속의 판단
삼성SDI 기존 국내 수주	2025년 연간 실적 발표에서 국내 1차 중앙계약 수주와 SBB 1.7(NCA)·2.0(LFP) 구성을 설명했다. [6]	국내 시장 노출의 근거다. 이번 1,180MW의 낙찰·점유율·마진을 뜻하지 않는다.
LG에너지솔루션 글로벌 전략·계약	셀~소프트웨어 통합 전략. 버테크의 미국 사업은 설계·설치·유지보수·AEROS 제공 범위를 보여준다. [7] [8]	서비스로 판매 범위를 넓힐 수 있지만 통합·보증 책임의 배분을 함께 봐야 한다. 미국 계약을 국내 낙찰로 바꿔 읽지 않는다.

같은 GWh에서도 이익은 달라진다. 제품 판가와 제조원가, 가동률 개선에 따른 고정비 흡수, 고객별 보증조건, 시스템 판매 비중이 함께 작용한다. 전사 또는 배터리 부문 손익에는 다른 제품·지역의 효과가 섞이므로 국내 중앙계약 마진으로 대체할 수 없다.

초기 설계여유와 장기 보증을 함께 본다

송전단 계약저장량과 셀의 명목용량은 기준이 다르다. 보증수명 하한 70%를 계약용량의 70%만 이행해도 된다는 뜻으로 읽지 않는다. 공고가 인용한 보증조건은 운영 중 설계용량을 추가해 보증수명을 연장하는 방식에도 제한을 둔다. [2] [3]

관찰 지표

국내 계약의 확정 공급범위·검수·수금과 보증비용을 우선 확인한다. 제조사의 생산능력 계획이나 글로벌 ESS 성장률만으로 특정 국내 프로젝트의 현금 기여를 추정하지 않는다.

08 / INTEGRATION & OPERATIONS

통합·운영은 반복수익과 의무의 결합

국내 사례는 사업 역할을 보여준다. 서로 다른 연도·규격의 프로젝트를 이번 입찰 수주로 합산하지 않는다.

LS ELECTRIC | EPC와 15년 O&M

2025년 4월 발표된 제주 한림 사업은 2023년 선정된 PCS 10MW·배터리 40MWh 프로젝트다. 회사는 EPC와 향후 15년 O&M 역할을 제시했다. 당시 준공 목표는 실제 완료와 구분해야 한다. [9]

SK이터닉스 | 개발·PM·O&M과 지분의 구분

2026년 2분기 IR은 가시리그리드파크 40MW·240MWh의 공사 진행과 2027년 초 가동 목표를 제시한다. 사업기획·PM·O&M 및 지분 투자에 따른 수익 인식은 서로 다른 층위다. [10]

경제적 단계	확인할 현금 조건
설계·조달·시공	계약금·중도금·검수 잔금, 원가 증액 부담, 지체·성능 배상
장기 O&M	서비스 범위·물가 조정, 예비품·복구 의무, 실제 수수료와 비용
SPC 지분 투자	운영 정산 이후 차입금·세금·준비금을 거친 배당 가능성

한림은 4시간형의 과거 사례다. [9] 금번 공고는 6시간형이다. [2] [3] 가시리의 2027년 가동은 회사 계획이다. [10]

TRADELENS 해석

설비를 통합하고 운영할 능력은 반복수익의 기회를 만든다. 그러나 프로젝트 전체 정산금, 회사의 용역 매출, 지분법 손익과 실제 배당은 각각 구분해야 수익의 지속성을 평가할 수 있다.

09 / ILLUSTRATIVE CASH ST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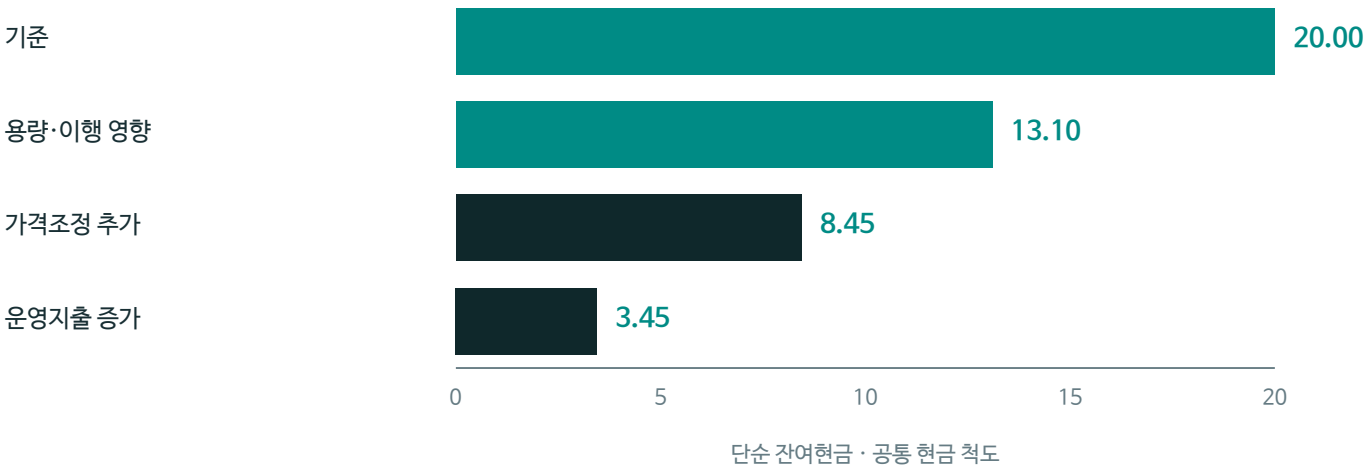
작은 정산 차감이 현금 여유를 줄인다

설명용 가정: 기준 정산수입=100. 같은 기간의 운영지출·금융상환과 비교하는 공통 현금 척도다.

모형 A | 실제 입찰가격·기업 전망이 아닌 독립 계산

정산수입 R = 100 × p × q × f
단순 잔여현금 = R − 운영지출 30 − 금융 원리금 상환 50
p: 계약가격 계수 / q: 공급가능용량 계수 / f: 이행 계수

가정	정산수입	운영지출	원리금	잔여현금
p=q=f=1	100.00	30	50	20.00
q=0.95, f=0.98	93.10	30	50	13.10
위 조건 + p=0.95	88.45	30	50	8.45
위 조건 + 운영지출 35	88.45	35	50	3.45



별도 요건의 가격·용량·이행 영향이 기간 전체에 적용된다는 가정이다. 같은 원인의 자동 중복 감액을 뜻하지 않으며 실제 조정 산식을 재현한 계산도 아니다. 세금·추가투자·준비금·배당제약을 제외하므로 영업이익·배당가능금액이 아니다.

TRADELENS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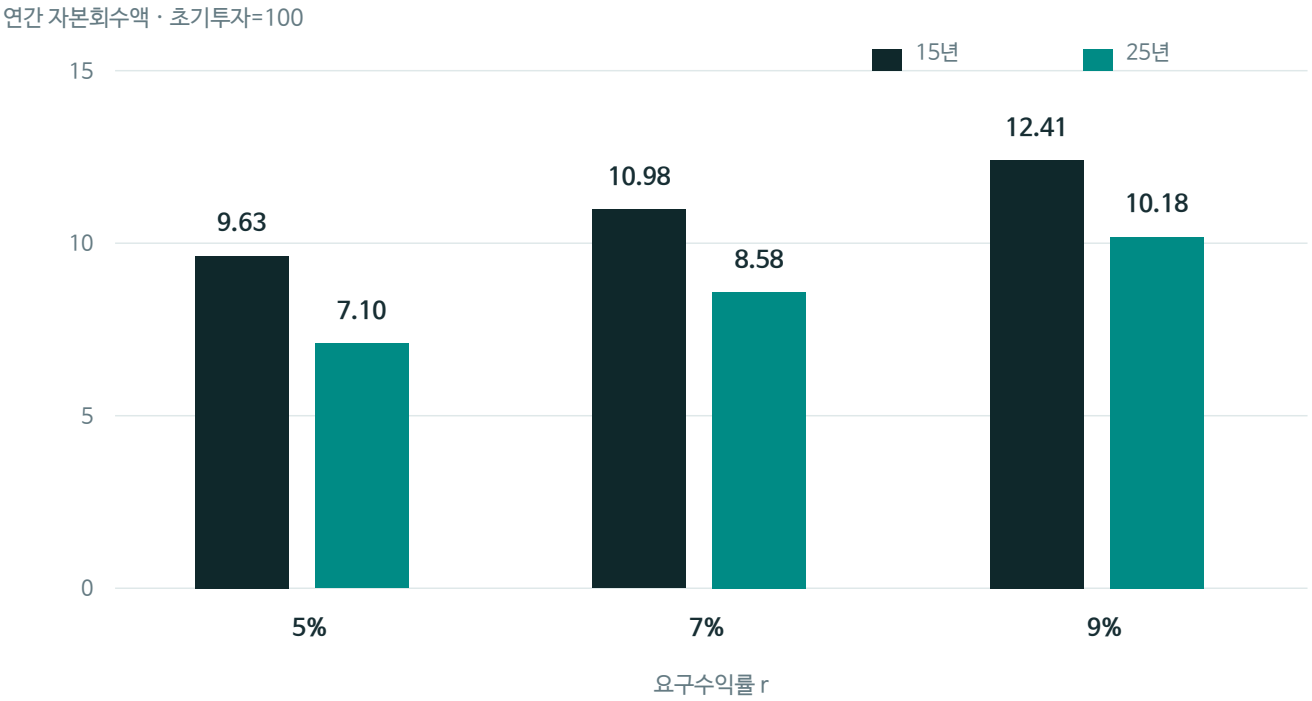
운영지출과 원리금이 유지되는 첫 스트레스에서 정산수입은 6.9%, 잔여현금은 34.5% 줄어든다. 수주 규모보다 정산을 방어할 성능과 비용의 유연성이 사업주의 현금 여유에 더 중요할 수 있다.

10 / CAPITAL RECOVERY

25년 계약이 더 낮은 가격을 만드는 조건

설명용 가정: 같은 초기자본 100을 매년 말 균등하게 회수하고, 잔존가치는 0으로 둔다.

모형 B의 연간 자본회수액 = $100 \times r / [1 - (1+r)^{-n}]$
r은 자본의 요구수익률, n은 회수기간이다. 대출금리·실제 원리금이나 입찰 평가 할인율을 적용한 값이 아니다.



요구수익률 7%에서 연간 회수 요구액은 15년 **10.98**, 25년 **8.58**이다. 기간을 늘리면 초기자본을 나누어 회수하는 연간 부담은 낮아진다. 그러나 이는 유지보수·교체·물가·세금과 성능 의무가 같다는 뜻이 아니다.

제주 25년형은 730회/년, 누적 18,250회 이상의 설비 요건을 갖는다. 더 긴 기간의 단가 경쟁력은 추가 내구·성능 비용과 자본비용까지 회수할 수 있을 때 성립한다. 생애비용은 초기 설비가격에 운영·수명·교체 요소를 함께 연결해야 한다. [3] [11]

TRADELENS 해석

기간의 이점이 금융·성능비용을 자동으로 이기지는 않는다. 이 모형은 초기자본의 회수만 설명하며, 앞쪽 모형 A의 금융상환액에 다시 차감하거나 합산하지 않는다.

11 / CONTRACT RISK ALLOCATION

위험을 넘겼다는 계약이 작동해야 한다

확인할 것은 보증의 존재보다 실제 운전 의무와 비용 보전 범위가 맞는지 여부다.

위험	계약에서 확인할 내용	사업주에게 남을 수 있는 부담
배터리 열화	온도·사이클·사용범위·보증기간, 초기 여유와 수리·교체 책임	보증 제외 조건, 교체 중 정지, 공급자 지급 능력
PCS·EMS 통합	인수시험, 원인 규명, 응답·복구 시간과 예비품	장비 간 책임 경계, 정산 손실의 미보전
화재·안전	설계·설치·운영 의무, 보험의 한도·공제액·예외	복구·영업중단·자기부담과 보험 밖 손실
준공·계통연계	허가·연계 선행조건, 공기·지체 배상과 이행보증	조기 수입 지연, 금융비용과 계약상 불이익
금융·물가	금융종결, 고정·변동 조건, 수수료 조정과 준비금	차환·비용 상승, 배당 제한과 추가자금 부담

TradeLens의 계약 검토 관점. 특정 기업의 실제 보증·보험·금융조건을 뜻하지 않는다. 공고상 성능·가격조정·준공·보증 요건: [2] [3]

공급자에게 위험을 이전하면 그 대가가 장비가격이나 서비스료에 포함될 수 있다. 값싼 공급계약의 면책 범위가 넓다면 사업주의 잔여위험은 오히려 커진다. 반대로 범위가 분명한 보증과 신속한 복구는 정산 안정성을 높이는 경제적 기능을 한다.

TRADELENS 해석

가치의 핵심은 위험을 가장 많이 떠안는 데 있지 않다. 이행 능력이 있는 당사자에게 책임을 배치하고, 남는 위험의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는 능력에 있다.

12 / WHAT TO WATCH

낙찰 다음에 확인할 네 가지 관문

시장은 공고 물량에서 시작하지만, 기업의 이익은 계약 이행과 현금 전환에서 확인된다.

관문	판단을 강화하는 증거	판단을 약화시키는 증거
01 낙찰·계약	확정 공급범위·가격·기간과 책임의 대응	공고·협약만 있고 확정 계약·비용 범위 불명확
02 금융·착공	허가·연계·자금조달 조건과 공사 일정의 정합	조달비용 상승·지연이 가격 여유를 소진
03 준공·인수	실제 송전단 성능, 검수 완료·대금 회수	성능 보완비용·보증비·잔금 회수 지연
04 운영·회수	용량·이행·비용의 안정과 실제 현금창출	정산 차감·복구 비용·준비금이 잔여현금 잠식

기본 판단. 신규 수요는 배터리와 전력설비의 기회를 넓힌다. 그러나 입찰의 차별화는 장기 성능을 실현하는 총비용으로 이동한다. 기업별로는 어떤 매출을 받는지와 그 매출에 붙은 의무를 함께 봐야 한다.

반증 조건. 성능·통합 역량의 차이가 표준화로 사라지거나, 낙찰가격 하락이 비용 절감보다 빠르면 공급량 증가가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반대로 비용을 충분히 반영한 계약과 검수·운영·수금이 확인되면 가치 귀속 판단은 강화된다.

독자에게 남길 판단 기준

"얼마나 많이 공급하는가"에 더해 "어떤 성능을 얼마 동안 보장하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를 물어야 한다. ESS 중앙계약시장의 이익은 그 약속을 이행한 뒤 남는 현금에서 드러난다.

13 / SOURCE REGISTER · POLICY

출처 목록

청록색 본문 번호와 아래 자료 제목·원문 열기를 누르면 해당 개별 원문으로 연결된다.

01. 기후에너지환경부 |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개설, 1,180MW 입찰 공고

2026-09-22 · 정부 보도자료
금번 공고물량과 과거 누적 선정물량, 장수명 계약 도입 취지 · 원문 열기

02. 한국전력거래소 | 2026년 ESS 중앙계약시장(육지) 경쟁입찰 공고

2026-09-22 · 입찰공고 제2026-05호
인쇄 1~2, 5, 13~17, 22~23, 25~27쪽: 물량·일정·설비·평가·정산 · 원문 열기

03. 한국전력거래소 | 2026년 ESS 중앙계약시장(제주) 경쟁입찰 공고

2026-09-22 · 입찰공고 제2026-06호
인쇄 1, 5, 20~21, 24~29쪽: 15년·25년 계약, 월별 차익거래 지급계수 · 원문 열기

04. 한국전력거래소 | 2026년 ESS 중앙계약시장 사업자 설명회 발표자료

2026-09-29 게시 / 09-30 설명회 · 공식 설명자료
슬라이드 26~29: 월별 기준수익, 구간별 정산, 계약유형 비교 · 원문 열기

05. 한국전력거래소 | 2026년 ESS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 공고 별첨서류 수정 안내

2026-10-14 · 공식 공지
Data Sheet 납입자본금 산식 안내와 적용 공고 기준 · 원문 열기

출처의 회사 계획·전망은 해당 발표 시점의 설명이다. 보고서의 구조적 판단과 설명용 계산은 TradeLens 분석으로 구분한다.

14 / SOURCE REGISTER · COMPANIES & METHODS

출처 목록

청록색 본문 번호와 아래 자료 제목·원문 열기를 누르면 해당 개별 원문으로 연결된다.

06. 삼성SDI | 삼성SDI, 2025년 4분기 및 연간 실적 발표

2026-02-02 · 회사 실적 발표
국내 ESS 1차 중앙계약시장 수주, SBB 1.7·2.0 제품 구성 · 원문 열기

07. LG에너지솔루션 / LG | LG Energy Solution Releases 2026 Second-Quarter Financial Results

2026-07-30 발표 / 07-31 게시 · 회사 실적 발표·전략
셀에서 소프트웨어까지 통합 솔루션 전략과 글로벌 ESS 사업 범위 · 원문 열기

08. LG에너지솔루션 | LG에너지솔루션 버테크(Vertech) 대규모 ESS 프로젝트 공급 계약 체결

2024-11-14 · 회사 계약 발표
미국 Terra-Gen 계약, 설계·설치·유지보수와 AEROS 서비스 범위 · 원문 열기

09. LS ELECTRIC / LS그룹 | LS ELECTRIC, 제주 한림 대용량 ESS 구축 사업 첫 삽

2025-04-24 · 회사 사업 발표
2023년 선정 한림 사업의 10MW·40MWh와 EPC·15년 O&M 역할 · 원문 열기

10. SK이터닉스 | 2026년 2분기 실적 IR북

2026-08-13 · 회사 IR·계획
인쇄 4, 7, 20쪽: 기존 ESS 범위, 수익 인식, 가시리그리드파크 역할·계획 · 원문 열기

11. 미국 태평양북서부국립연구소(PNNL) | Energy Storage Cost and Performance Database: LCOS Estimates

v2024 / 2026-10-25 기준 · 국립연구소 비용 방법론
초기비용·운영·수명·교체 등 생애비용의 구분. 미국 단가는 적용하지 않음 · 원문 열기

출처의 회사 계획·전망은 해당 발표 시점의 설명이다. 보고서의 구조적 판단과 설명용 계산은 TradeLens 분석으로 구분한다.

15 / METHODOLOGY & USE

작성 기준·면책고지·보고서 이용 안내

확인된 사실, 회사 설명·계획, TradeLens 분석과 설명용 가정을 구분한다.

항목	적용 기준
분석 기준	2026.10.25. 제도는 9월 22일 공고·공식 설명자료와 10월 14일 공지를 기준으로 한다. [2] [3] [4] [5]
범위·단위	국내 ESS 중앙계약시장. 출력 MW와 저장량 MWh, 공고·선정·준공을 분리한다. 15·25년은 거래기간이다.
제주 도표 · 5쪽	월별 B=100, A≥0. A≤B: F=A; B<A≤3B: F=B+0.25(A−B); A>3B: F=1.5B+(A−3B). 계약 정산금 제외.
모형 A · 10쪽	R=100pqf, 잔여현금=R−운영지출−원리금. 공통 현금 척도·기간 전체 적용 가정. 회사 이익·배당과 다름.
모형 B · 11쪽	100r/[1−(1+r)^(−n)]. 초기자본·요구수익의 균등 회수. 운영·세금·교체·물가·잔존가치 제외. A와 합산하지 않음.
기업·정산	과거·해외 사례와 금번 입찰 분리. 공개되지 않은 배분물량·판매가·마진·실제 금융조건은 추정하지 않는다.

면책고지

본 보고서는 산업과 기업의 사업구조·성장성·수익성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매수·매도 의견·시점, 적정가격·목표가격 및 이용자별 투자자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록 정보와 분석은 작성일 기준이며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망과 설명용 계산에는 불확실성이 있으며 원금이나 투자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판단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계 법령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트레이드렌즈는 본 보고서 이용에 따른 투자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 및 이용 제한

본 보고서의 서술·도표·디자인·편집 및 구성 중 트레이드렌즈가 권리를 보유한 부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 개인 열람·보관 외에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편집·번역·재가공하거나 복제·전송·재게시·재배포·판매할 수 없습니다. 유료·무료 제공 및 파일·화면 캡처 등 형태를 불문하며 로고·출처·권리표시를 제거하거나 제3자 명의로 배포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이용과 제3자 자료의 개별 이용허락조건은 그에 따릅니다. 공유는 트레이드렌즈 공식 게시페이지의 원문 링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